

농촌 어메니티 자원 관리를 위한 자원속성별 유형분류체계

조순재 · 김진선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I. 서론

어메니티는 환경을 구성하는 자연, 문화, 시설 등이 서로 공생과 조화가 취해짐으로서 이들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조화가 유지되는 경우에 생기는 감각, 효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총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과 복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적재적소(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에 존재한다고 하는 질서 있는 환경속에서 생성되며 어메니티자원(자연, 문화, 레크레이션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산업 및 서비스 활동에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鄭岩宇 외, 1994). 한편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특유의 녹이 풍부한 자연, 역사, 풍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여유, 정감, 평온이 가득하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바탕을 둔 정주 쾌적성을 가진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수명, 2002). 한편, 이러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활성화, 개발방향 및 보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전략이 제되어야 한다(권정아 외 2인, 2001). 농촌이라는 대상지에 일률적인 자원 활성화, 개발방안 및 보전전략을 적용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 마을이 처해 있는 여건 즉,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의 보유정도, 개발정도, 관리상태, 지역주민의 의견차이 등은 농촌마을 어메니티 자원을 토대로 개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파악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농촌마을마다의 특성을 달리하고 있는 자원 특성별 유형적 단서를 추출해 내고 그에 따른 유형분류를 실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농촌마을 유형분류"를 하기 위해 물리적 분석으로서 대상지의 자원별 면적 및 수적인 비교우위 분석, 인지적 분석으로서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국 도 단위에서 2개 마을씩 16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지가 마을단위라 하더라도 자원에 대한 인지정도는 마을이 포함되어있는 시·군단위까지 확대되므로 대상농촌마을이 포함된 시·군단위 두 군데씩을 포함하여 공간적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 자원별 인지여부, 정체성, 발전방향 그리고 관리상태에 대한 질문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방법으로는 1대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 시·군 공무원 3개과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대상자로 설정하였다. 농촌마을의 유형분류를 하기 위해 조사된 자원은 농촌생활연구소(2002)에서 제시한 자원분류체계인 자연적자원, 사회적자원, 문화적 자원의 3개분야로 대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7개 분야의 37개 종류로 세분하여 조사한 자원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III. 연구결과

각 대상지별 자원에 대한 인지여부, 정체성, 발전방향, 관리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자원에 대한 인지여부는 자원에 대한 존재여부를 알고 있는지, 정체성은 그 자원이 마을을 대표할만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발전방향은 그 자원이 마을에서 발전되기를 희망하는지, 관리상태는 자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1에서는 각각의 결과를

표 1. 자원별 설문지 결과

지역	항목	인지여부 (%)			정체성 (5점 척도)			발전방향 (5점 척도)			관리정도 (5점척도)		
		자연 자원	문화 자원	사회 자원	자연 자원	문화 자원	사회 자원	자연 자원	문화 자원	사회 자원	자연 자원	문화 자원	사회 자원
경기	이천	32.3	48.9	100	3.7914	4.0027	3.8278	3.5960	3.9278	3.8321	3.3276	3.7282	3.8542
	양평	43.9	66.7	40.0	3.9837	4.2768	3.7857	3.8656	4.2218	3.4000	3.9658	4.7736	3.5385
강원	양양	70.9	81.7	67.0	4.2181	3.1713	3.8900	4.0484	4.3143	3.9160	3.1714	3.4457	3.3955
	평창	53.8	57.1	72.6	3.2680	3.7032	3.3035	3.3898	3.7990	3.5667	3.0481	3.8643	3.5556
충북	진천	56.9	52.9	63.0	3.5649	3.7106	3.8570	3.7365	3.8652	4.0516	3.3421	3.5667	3.4850
	괴산	57.2	28.6	57.2	3.2778	3.1649	3.2436	3.5580	3.4781	3.6108	3.1826	3.4192	3.1612
충남	홍성	80.6	82.0	92.5	3.9826	4.1619	4.1364	3.9603	4.2527	4.2105	3.3840	3.6703	3.4737
	보령	44.4	64.1	96.5	3.7220	3.9417	4.5044	3.9698	4.0410	4.5984	3.4220	3.4770	4.2794
전북	완주	60.0	61.7	95.6	4.1792	4.1159	4.5052	4.0883	4.0545	4.5049	3.5210	3.7432	3.9352
	고창	47.2	49.8	52.8	3.2340	3.5243	3.1023	3.3452	3.1043	3.2047	3.4369	3.1047	3.0243
전남	광양	55.5	83.1	94.4	3.4942	3.7045	3.8022	4.0611	3.9344	3.8561	3.2787	3.3626	3.4859
	곡성	68.1	62.7	84.9	3.4795	3.8338	3.7336	3.4314	3.9477	4.0490	3.2802	3.4876	3.5822
경북	경주	55.7	70.3	87.1	3.3758	3.6424	3.5838	3.2486	3.6869	3.5210	3.1582	3.4789	3.4395
	고령	64.7	69.3	92.1	3.4334	3.3966	3.4848	3.6059	3.5762	3.6273	3.6714	3.6856	3.5426
경남	남해	62.8	72.8	90.2	3.8080	3.5695	3.8268	3.9755	3.8817	4.2820	3.4803	3.4072	3.5638
	하동	81.5	67.0	91.8	3.8947	3.2655	3.4848	4.0236	3.4692	3.7103	3.5571	3.6426	3.6479

*척도 : 1:매우 모르고 있음(희망하지 않음) ← 보통: 3 →매우 잘 알고 있음(희망하고 있음): 5

표 2. 자원별 면적·수적 비교우위분석

산악자원 면적순위	수자원 면적순위	산악·수자원 면적순위	사회자원 순위
① 강원 평창(216,362,841m ²) ② 강원 양양(127,430,647m ²) ③ 경북 경주(116,314,508m ²) ④ 전북 완주(101,713,055m ²) ⑤ 전남 광양(94,414,553m ²)	① 강원 평창(3,594,096m ²) ② 충북 진천(3,378,500m ²) ③ 충남 보령(2,825,660m ²) ④ 경기 양평(2,703,252m ²) ⑤ 경남 하동(2,585,867m ²)	① 평창(219,956,937m ²) ② 양양(128,770,376m ²) ③ 경주(117,606,885m ²) ④ 완주(102,093,162m ²) ⑤ 광양(96,706,930m ²)	① 경남 하동(39) ② 강원 평창(38) ③ 경북 고령(32) ④ 전남 곡성(29) ⑤ 충북 괴산(20)
산악자원 개수순위	수자원 개수순위		문화자원 순위
① 경기 양평 ② 충북 진천 ③ 경기 이천, 강원 양양 ⑤ 충남 홍성, 전북 완주 경북 고령, 경남 하동	① 경북 경주 ② 전북 고창 ③ 경북 고령 ④ 전남 곡성 ⑤ 강원 양양	① 전북 고창(111) ② 충북 괴산(82) ③ 충북 진천(43) ④ 경기 양평(27) ⑤ 경북 고령(25)	

합한 평균값이며, 표 2에서는 물리적 분석 상위 5순위에 대한 결과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지인 16개 마을의 경우 인적자원이나, 재정자립도 등이 각각 다른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므로 지역주민 인터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유형분류를 하는 절대적 근거를 삼을 수는 없으나, 통합적 결과분석을 보면, 각 대상지 고유한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

한편, 농촌마을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의 공통사항은 사회간접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도입시설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농업만으로는 경제적 수단으로 부적합하며 대안산업을 요구하고 있었고, 하드웨어(도로, 건물, 교량, 부대시설 등)적인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이벤트, 축제, 특산물 판매전략 등)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문화·사회자원 속성 우위 분석을 통한 물리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통합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원별 면적 및 수적 비교 우위분석을 통한 물리적 근거와 자원별 설문조사를 통한 인지적 근거를 통합하여 유형분류를 실시하였다. 물리적 근거로서 자연성향이 강한 지역은 양양, 평창, 진천, 문화성향이 강한 지역은 고창, 괴산, 진천, 양평, 고령, 사회성향이 강한 지

역으로는 하동, 평창, 고령, 곡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지적 근거로서 자연성향이 강한 지역으로는 양양, 평창, 하동, 남해, 문화성향이 강한 지역은 이천, 양평, 홍성, 경주, 사회성향이 강한 지역은 보령, 완주, 진천, 광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물리적, 인지적 근거를 통합하여 보면, 환경친화형, 전통문화형, 환경친화형+전통문화형, 이벤트, 축제 체험형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표 4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선행단계로서 자원별 속성을 물리적, 인지적 근거를 통합하여 유형분류를 실시하였지만 유형분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세밀한 유형분류 연구의 연계와 농촌 어메니티 자원 특성별 마을 유형 체계에 따른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 자원별 속성 우위 분석결과

속성 단계	자연자원	발전방향	관리상태	비고
상	양양 (4.2181)	자연 (4.0484), 문화 (4.3143) - 중	자연 (3.1714), 문화 (3.4457)	자연자원, 정체성, 발전방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
	평창 (3.2680)	자연 (3.3898), 문화 (3.7990) - 중	자연 (3.0481), 문화 (3.8643)	
중	하동 (3.8947)	자연 (4.0236)	자연 (3.5571) - 중	
	남해 (3.8080)	자연 (3.5580)	자연 (3.4803) - 중	
하	괴산 (3.2778)	사회 (3.6108)	사회 (3.1826) - 중	
	문화자원	발전방향	관리상태	비고
상	이천 (4.0027)	문화 (3.9278) - 중	문화 (3.7282) - 중	문화, 자연, 사회자원에 대한 정체성, 발전방향이 강하게 나타남
	양평 (4.2768)	문화 (4.2218)	문화 (4.7736) - 상	
	홍성 (4.1619)	문화 (4.2527)	문화 (3.6703) - 중	
중	곡성 (3.8338)	문화 (3.9477), 사회 (4.0490)	문화 (3.4876), 사회(3.5822) - 중	
	경주 (3.6424)	문화 (3.6869)	문화 (3.4789) - 중	
하	고령 (3.3966)	문화 (3.5762)	문화 (3.6856)	
	사회자원	발전방향	관리상태	비고
상	보령 (4.5044)	사회 (4.5984)	사회 (4.2794) - 상	자연자원 보유력이 높은 것에 비해 사회자원 개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남
	완주 (4.5052)	사회 (4.5049)	사회 (3.9352) - 중	
중	진천 (3.8570)	사회 (4.0516)	사회 (3.4850) - 중	
	광양 (3.8022)	자연 (4.0611)	자연 (3.2787)	
하	고창 (3.1023)	자연 (3.3452)	자연 (3.4369)	

표 4. 농촌마을 유형분류를 위한 통합분석

유형분류	물리적 차원	인식적 차원	통합적 논의
자연자원 성향(강)	경주, 양양, 광양 : 산악자원 (강) 평창, 양평, 하동, 진천 :수자원(강)	양양, 평창(상) 하동, 남해(중) 괴산(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친화형 : 양양, 평창, 남해, 하동 - 자연자원우수/ -사회자원구축우수
문화자원 성향(강)	고창, 괴산, 진천, 양평, 고령 : 문화성향 (강)	이천, 양평, 홍성(상) 경주, 곡성(중) 고령(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문화형 : 경주, 이천, 양평, 홍성 - 문화자원 풍부 - 사회자원구축 양호
자연+문화 자원 성향	하동, 평창, 고령, 곡성, 괴산 : 사회성향(강)	보령, 완주(상) 진천, 광양(중) 고창(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친화형+전통문화형 : 보령, 완주, 진천, 광양 - 자연, 문화자원 우수 - 자원이 우수한 반면 사회자원개발 요구
이벤트, 축제 체형(강)	고령, 곡성, 괴산 : 자원빈약	괴산, 고령, 고창 :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벤트 및 축제참여형 : 고령, 곡성, 괴산, 고창 - 자연, 문화, 사회자원 우위를 확보하지 못함 - 사회시설 구축 결실

인용문헌

1. 권정아, 이동근, 최재용 (2001) 문화마을의 유형별 평가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농촌계획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6(2): 33-43.
2. 농촌생활연구소(2002) 주민 참여계획모델에 의한 농촌 어머니 자원 발굴 및 설계기술 현장적용연구, 농림기술연구과제 연구실적, 계획서.
3. 鄭岩宇, 栗原伸一, 馬捷 (1994) 農業, 農村向上計劃の目標構造と日, 韓比較, 日本農村計劃學會誌, 13(3):2-34.
4. 최수명(2002) "농촌어메니티자원화방안", 농촌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한국농촌계획학회, pp. 5-28.